

台灣·방콕·싱가폴 紀行 〈1〉



台灣省建築師公會에서 우리會員의 台灣訪問을 환영 하는 프랑카드

李康範

입춘과 우수를 훨씬 지낸 2월28일인데도 서울의 날씨는 그대로 겨울의 연속이다.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서울 지부장 김만성씨를 단장으로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15명(총북1명, 강원1명, 서울 13명)과 안내를 담당한 새한항공사 직원 1명 포함 16명은 타이페이, 방콕,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도쿄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오후 3시경 대한항공 605편으로 김포공항을 이륙하였다.

단원 15명중 반수정도가 외국여행의 경험이 있으나 나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은 초행이다. 모두들 동남아에 기대를 건 첫번째의 순간인 것이다. 구름 위를 완전히 벗어나 고도 3,000 피트 상공에 이르렀다는 기장의 설명이었다.

다시 안전벨트를 풀고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싸인이 들어왔다. 일행은 잠시 구속되었던 행동이 자유로워지며 서로 이야기하기가 바빴다. 구명부 입은 방법을 설명한 후 곧 식사가 지급되고 있었다.

단장은 room mate 를 짜느라고 메모중이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던 사무실을 벗어나 모든 걱정들을 김포공항에 두고온 기분이라서 마음은 날아갈듯하다.

〈대 만〉

약2시간 20분 비행 후에 현지 시간 4시40분(한국과의 시차로 인하여 1시간 후퇴시킴) 첫번째 방문지인 대만에 도착. 기내에서 내려다 보이는 녹색의 산과 물이 가득찬 논과 맑은 저수지들이 5월경의 한국농촌 풍경과 흡사함을 갖게하다.

다만 저수지가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행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훈훈한 바람은 춘추복으로 일찍갈아 입고 김포공항에서 떨던 몇시간전의 일을 잊게 해 준다.

대북은 인구 약170만 에 년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다.

일행은 입국수속을 끝내고나와보니台灣省建築師公會에서 환영을 나와주어 2층VIP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후에 안 사실이 지만 우리 일행의 대만도착이 그곳 TV뉴스로 전해졌다고 한다) 룸내에는 이미 준비된 우리들을 환영하는 빨간판에 노란 글씨로 「大韓建築士協會、台灣訪問歡迎」이라적인 프랑카드가 벽체에 걸려 있었다.

이곳의 풍습으로 빨간색과 노란 색의 글씨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 한다.

筆者：李康範設計事務所 代表

우리측에서 준비한 선물등을 전하고 마중 나와준 교포인 모 대학교수의 통역에 의하여 환영사와 답사가 오고갔다.

마침 이곳의 “건축사년차총회”가 다음날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사, 간사, 상무, 건축사등 여러분만이 마중나와 주었고, 회장은 내일 회의준비관계로 현지에 가 있다고 한다.

총회관계로 우리를 일일이 안내하여 줄 수 없다며 몹시 서운해 하였다.

일행은 준비된 배스에 탑승, 호텔로 향했다. 대북 국제공항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호텔까지는 멀지않은 거리였다. 우리가 여장을 푼 호텔은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majestic hotel 이었다. 호텔간판은 “美琪大飯店”이라 적혀있는데 어떤 큰식당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것 같다. 大飯店이 호텔의 뜻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한 곳이다. 호텔로비에서 기다리는 중 방 배치가 끝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의 room mate 인 이의구씨와 몇마디를 나누며 TV스윗치를 켜 보았다. 의외에도 화면에 전개되는 장면은 천연색이 아닌가!.

말로만 들던 천연색 TV가 바로 이것이구나!

다음날인 3월1일의 스케줄은 시내도시 계획 및 건물, 명소를 돌기로 되었다. 마침 건축자재전시회가 있어 둘러보았는데 특이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면 타당할 것 같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질 못하고, 다음목적지로 방향을 돌렸다. 대만에서 제일 큰 고전건축양식에 의해서 지어진 「grand hotel (圓山大飯店)」을 보았는데 이 호텔은 기둥이 외부로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기둥은 모두 빨간 색으로 페인팅 되었고, 지붕은 노란 색의 기와로 덮혀져 있는 거대한 중국고전양식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11층 빌딩이다.

고전적인 외부형식과는 달리 내부시설은 초현대식으로 장식되었고, 넓직한 1층로비는 시원스럽게 처리된 것이 마음에 든다. 이 호텔은 정부직영호텔로서 영빈관으로 사용된다 한다.

다음으로 찾아 본 곳은 국립박물관이다. 이곳의 위치는 산골에 위치하여 외부로 부터의 공습에 보호되도록 건축되었고, 「장개석」총통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올때 가져왔다는 각종 유물들 약 22만점 중 8만점이 전시되고 나머지는 특수처리된 동굴 속에 소장되어 볼 수 없었다.

이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란서의 “루브르” 박물관 다음가는 곳이다. 전시된 종류는 약3,500년전 토기류 및 청동 그릇, 특히 600여년전 백자기, 300여년전 청나라 시대의 청자기등 그 색채의 표현과 섬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인 안내원에게 저 조그만 술잔을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가격으로 환산이 안되고 공매에 부친다면 1억원 이상 나갈거라는 답변이다. 일행은 약간의 기념촬영을 끝낸 후 장총통이 집무하고 있는 총통부 광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빨간 벽돌로 건축되어진 근대건축양식이다. 대만은 산이 많은 나라이다.토지 이용율이 높고, 지난 세계적 유행과동태 국민이 약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량의 기름을 저장하여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도자의 현명함을 통감하게 해 준다.

총통부 광장에서 기념촬영에 바쁜 일행들이 이곳 저 곳으로 뿔박질하는 것이 시간의 촉박함을 알리는 것 같아 아쉽기 만하다. 다시 우리를 실은 빠스는 대북시 번두리로 빠지고 있다.

목적지는 유명한 대만원주민촌인 “우라이(鳥來)”이다.

이곳은 대북시내에서 동남쪽으로 27km지점. 산골에 위치하였으며 빠스로 약1시간정도 거리였는데 시내를 완전히 벗어난 후 부터 빠스는 고르지못한 비탈길을 통해 계곡의 강가를 거슬러 올라갔다. 강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채취기제는 서울한강에 설치된 철선 같았는데 큰 골재는 버리지않고 다시 쇠석기제로 옮겨지는것 같았다.

빠스에서 내려 소형레일을 이용한 인력거 비슷한 2인용 동차를 타고 올라가니 파란색의 잘 가꾸어진 산림사이로 철쭉꽃과 같은 빨간 색의 꽃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다. 천정만 있고 벽체가 생략된 극장에 들려 민속무용을 관람하고, 훔칠만큼 얼굴에 문신을 한 원주민들, 시원스런 폭포를 뒤로 바쁜 일정을 재촉하면서 하산.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 창문을 통하여 곳곳에 시공중인 건물들이 많이 보였다. 비계목은 전부 대나무로 엮어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은 점정 색이 약간 나는 것으로 한국산보다 저질인 듯하다. 대북시가지는 도로폭이 넓고 도로 중앙선에는 나무를 심어 가꾸어 놓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차도 다음은 오토바이등의 이륜차 전용도로, 다음이 보도로 되어있고 보도 다음에는 건물속으로 인도를 다시내어 비가와도 건물내의 인도로 걸어다니면 비를 맞지 않도록 “베벳티” 처리하였는데 이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한다. 거리 사이사이 공터는 밭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고 잡초만 무성한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것 같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공지가 있다면 하다못해 형틀장사라도 있었을텐데…….

총통부 정면, 의장대가 사열연습을 하고 있다.

대북 번두리에는 연립주택, 아파트가 많이 보였다. 대체적으로보아 우리나라보다 고층건물이 없고, 도시주위 환경은 서울보다 깨끗하며 잘 정돈된 상태다. 특이한 것은 다방을 구경하기조차 힘들만큼 거이 없는도시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많은 다방에 의아해 할 것이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배 정도가 된다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일본어가 어느 곳에서나 통할 수 있는 곳이다.

3월2일 자유시간을 가져 동료 몇몇과 대만생산의 과일을 사 먹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과 한개에 500원정도).

다음 행선지로의 출발을 위해 짐을 챙기고 개인적 시내관광에 나섰다. 몇곳을 다니는 동안 그들의 강한 집념과 생활력을 알수 있었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을 역력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외국인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 국〉

일행이 방콕행 KAL을 탄 시간은 오후 5시 40분. 서쪽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지평선 아닌 운(雲)평선을 따라 날랐다. 방콕국제공항에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 밤10시 정각이었다. (대만과 1시간차)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 말에 의하면 방콕의 날씨가 무덥고 모기가 많으며 냄새나는 지저분한 도시라고 귀뜸 해준다. 비행기 타랍을 내려오는 순간 찌는듯한 열기가 온몸을 덮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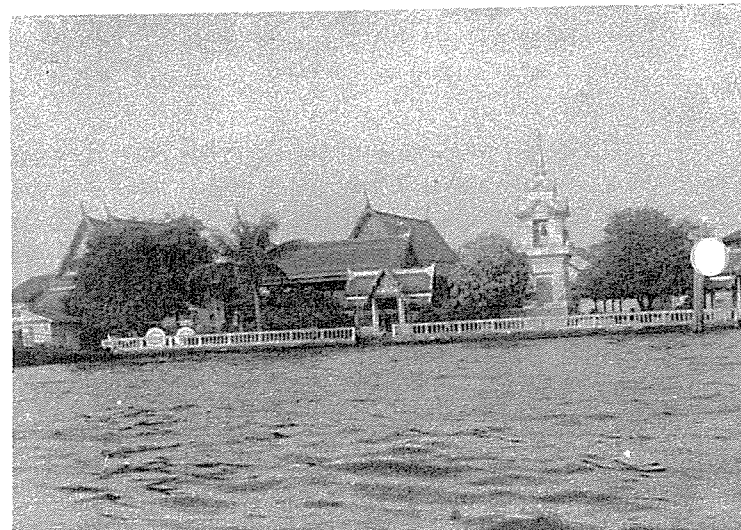
이곳의 년평균 온도는 30도 이상이라니 그 더위는 한국의 한 여름이다.

방콕은 인구 약310만 동남아시아와 구라파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로서 국제기구가 여러개 설치되어 있고, 국제회의, 국제경기등이 자주 열리는 곳이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이다. 비행장에서 호텔까지 냉방시설된 미니빠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중 태국 고유의 불교사원들이 야간조명에 비쳐지고 있었다. 1시간이 채 못되게 달려 Manohra Hotel 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마누라”와 비슷한 어감이라서 구수한 친근감 속에서 모두들 여장을 풀었을까다.

호텔방의 내부시설은 보통이었는데, 이곳 종업원들에게서 느끼는 불친절감에 모처럼만의 푸근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방마다 TV하나 비치 되어있지 않고 냉수마저 점점 하니 앓는 기분뿐이다. 내일의 바쁜 일정에 대비해서 그대로 침대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방콕시내 강가에 있는 불교사원





盛市를 이루고 있는 水上市場

3월3일 오전 7시 이른 아침식사를 끝내고 Floating market (수상시장)로 가기 위해서 강가에 도착 모타보트를 타고 강을 내려가며 강변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만 보았던 배경들이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식 건물과 불교사원과 야자수등으로 그려진 그림 그대로이다.

시내를 약간 벗어 나면서 모타보트는 야자나무와 잡목들로 이루어진 장글사이를 달려 약40분만에 수상시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옛부터 자기배에 물건을 싣고와서 그대로 물위에 띄워 놓고 상호간의 물물교환을 하는 곳으로 지금도 아침일찍부터 고단한 몸을 강제로 일으켜 달려온 것이다.

태국정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곳의 개발은 제한되어 있고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안내원의 이야기다. 이곳에서 값싼 빠나나와 야자를 먹었다. 빠나나의 값은 서울에서 2,000원정도 나가는 한다발이 여기선 200원정도다.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올때 다른 외국인들의 모타 보트에 밀려 수상교통이 잠시 마비되었다. 돌아오는 도중 강가에 위치한 사원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방콕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서 높이82m의 탑이었으며 서기1800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건축된 사원이라 한다.

태국사원의 건축양식은 처마의 끝부분과 용마루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하늘로 치솟아 오른 형태가 특징이다. 이것은 용이 승천하는 것을 상징으로 노란 색이 채색되어 있었다.

사원의 사탑건축의 묘는 어마어마한 정도로서 그 당시에 어떠한 재료로서 골격의 내부가 구성되었는지 이 나라의 불교건축술을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면에는 시멘트제품 비슷한(석회질인지 알 수 없다) 면에 조그마한 사기류 같은 것으로 부치고, 각종 색깔이 있는 타일 비슷한것으로 모자이크 해 놓아 가까이서 볼 때의 정교함은 나를 매혹시켜 배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잊고 말았다.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과연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다운 사원의 면모였다.

주어진 시간에 좀 더 많이 보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다보니 다리는 아프고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남방샤쓰차림의 온몸을 땀투성이로 만든다.

우리는 방콕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국식당 "식도원"에서 한식을 먹었다. 이곳에서 먹어 본 김치 깍두기의 맛은 진미, 김치가 몇 그릇이나 더 추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오후엔 시내도로변에 위치한 사원에서 누워있는 큰 불상을 볼 수 있었다.

이 불상의 길이는 150휘트. 방콕의 여인들이 항을 피우면서 염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와 순금제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무게가 4톤이 넘고, 눈에는 두개의 큰 사파이어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냉동된 야쿠르트 한병씩을 사마시며 더위와 땀질에 지친 몸을 달래며 호텔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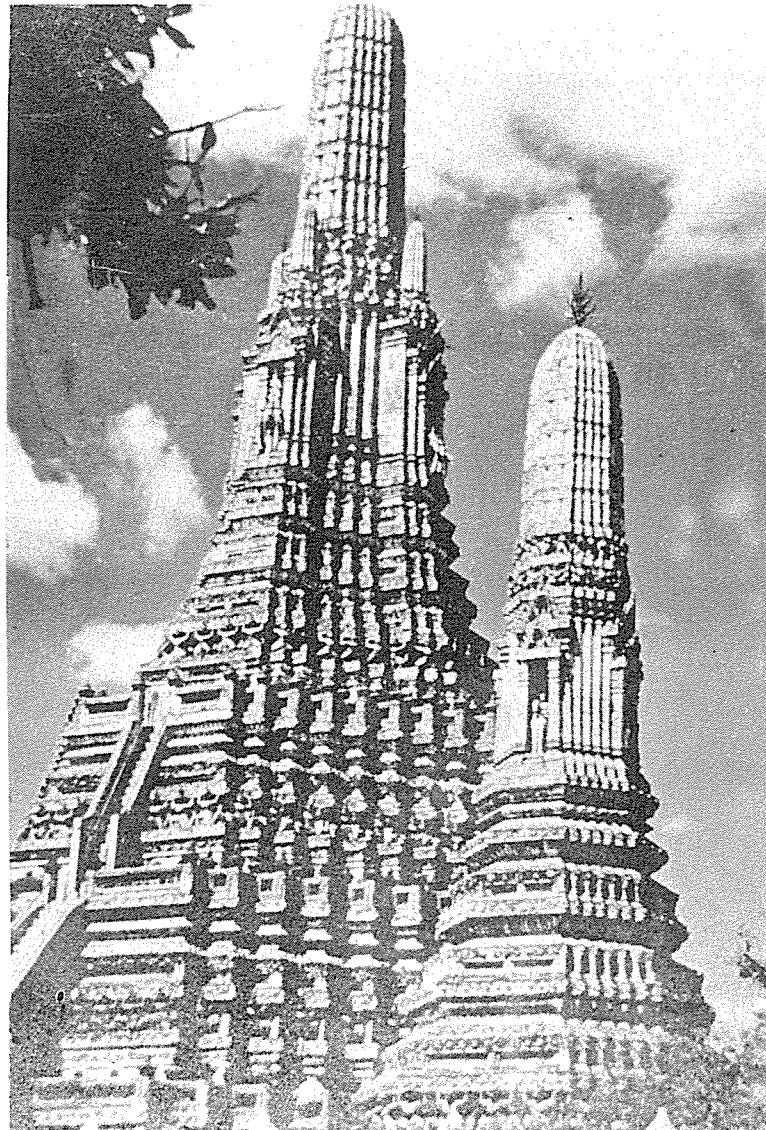
호텔에 도착 후 자유시간이 있어 한국인 교포를 만날겸 "라자호텔"에 있는 그의 집포를 찾았다.

보석과 가죽제품을 팔고 있는데 작년엔 재미좀 보았다는 얘기가.

호텔로비 소파에 앉아 우연히 천정을 바라 보았는데 어느 곳으로 부터 기어들어 왔는지 백색 천정에 붙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조그만 도마뱀들이 신기했다. 저녁에는 나의 Room mate 와 방콕의 야경을 보기 위하여 호텔을 나섰다. 밤이었는데도 날씨는 무더위 걸기가 힘들 정도다. 야외 커피숍 비슷한 곳에 무대를 설치하여 놓고 음모수와 주류등을 팔고 있는 곳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곳 아가씨들의 노래를 들어 보았다.

3월4일 일행중 4명이 그곳 교포의 자가용을 타고 snake farm 에 가서 각종 파충류를 보고 직경 15cm를 넘는 큰뱀을 어깨에 걸고 사진도 촬영.

방콕에서 가장 큰 82m 높이의 寺院



그 후 유명한 롬피니공원과 옛 궁전에 들렀다. 궁전의 본건물에는 옛날 태극왕이 살던 곳으로 그 건축양식이란 섬세하기 말할 수 없고(불교 건축양식과는 약간 시대적으로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음) 강렬한 태양 빛 아래 이글거리는 건물의 장식등은 천연색 사진으로 밖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카메라는 항상 촬영준비완료다. 사진이 잘 나올런지 의문이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거리의 이곳 저곳을 찍으려니 바쁜 마음에 담배 피울 시간마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남은 건 사진 밖에 없으니 필름을 아끼지 말라는 누구인가의 얘기가 옆에서 들린다. 호텔로 오는 길에 방콕의 과일들을 시식해 보았다.

수박과 청포도 길쭉하게 생긴 배롱 또 다른 것은 이름도 모를 과일들이다.

방콕 시내에 세워져 있는 사원이 8천여개나 된다니 거대한 사원의 도시이다.

시내에는 고층건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특히 현대건축은 볼 것이 없었다.

좀 더 많은 고층건축과 저 유명한 "파이강의 다리"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유감이었다.

싱가폴로 가기 위해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3시경.

일행 중 한 사람이 호텔에 뺨을 놓고와서 한참 진땀을 뺐다. 일행은 모두 그대로 출발하고, 뺨은 다음 비행기 편으로 싱가포르 숙소인 호텔까지 보내졌다. 방콕 국제공항은 시내 쪽에서 차편으로 들어와 2층 공항 현관까지 Lamp way 로 시공되어 차량이 통과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이륙, 방콕의 상공을 날랐다. 상공에서 본 방콕 시내의 강은 꾸불꾸불, 농촌은 경지 정리가 잘 된 농토. 다시 말레이시아 상공을 지나면서 아래로 보이는 장글지대가 신비롭기만 하다. 대한항공에서도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우리가 탄 "싱가폴 에어라인"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스튜어디스의 독특한 말레이시아 의상이 인상적이고, 비교적 대한항공 보다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

〈싱 가 폴〉

방콕으로부터 1시간 30분정도 비행하여 싱가포르착은 현지 시간 오후 6시40분 경, 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방콕과의 시차 30분)비행기가 말레이시아반도의 남단에 도착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경 주위를 맴돌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한다.

저녁 노을에 비취진 말레이시아반도와 싱가포르를 갈라 놓은 푸른 물빛이 어두움이 서린 가운데 하얀 빛을 반사 시키며 멀리 싱가포르 시내의 불빛이 아름답게 수 놓아져 보인다.

덜컹덜컹하는 Landing 소음과 함께 스피드는 갑자기 줄어든다.

비행장 주위는 밝혀진 불빛으로 많은 비행기들이 이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도 더운지방이라 에어컨 시설이 된 비행기내에서 있었던 더위가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다시 덜치기 시작한다. 방콕과 더불어 싱가포르 홍콩등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입국 수속중 싱가폴은 경유지로서 우리의 여권에 표시 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대기실에서 세계일주중인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먼저번 어떤 한국인이 이곳에 들어오려다 우리와 같은 이유로 입국허가를 못받고 24시간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큰일이다.

싱가폴 문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된다니.....

걱정을 하고 있는 중 우리의 입국허가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건축사의 위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의 수준과 동등한 후대를 받는다는데 이곳에서도 그런가보다.

건축사 싱가포르시찰이라니 즉석에서 허가되었다.

서울변두리 부동산업자속에 끼어 치열한 경쟁으로 덤핑을 사수 해 오며 허가만을 뽐아 주는 시시한 기사로 밖에 생각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안다면 입국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콘베어벨트 위에서 돌아가는 각자의 짐을 챙겨 들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오니 이미 빠뜨는 대기하고 있었고 싱가포르 여행사의 일본여인 안내로 Royal Hotel 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한국 여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지배인의 배려로 시간이 아닌데도 노래를 불러 주었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한국가요 노란샤쓰의 사나이를 들으면서 저녁 식사를 끝냈다.

그 후로 자유시간이라서 Roommate 와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기 위하여 택시로 드라이브 해 보았다.

인구250만의 이 도시는 중국계가 70%, 말레이시아계가 10%, 인도계가 10%, 기타 영국 일본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사용어로선 말레이시아어, 영어, 중국어등이 사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도 일본어가 잘 통하는 곳이다. 년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단다.

3월 5일 아침 9시 호텔을 출발하여 버스로 시내를 돌아 보았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고 푸른 수목 사이사이에서 고층빌딩이 하늘로 치솟아 도시 미는 더 말할 수 없다. 아마도 이곳의 건축공저비는 10%정도도 안되는 것 같다.

시내 일원이 대단히 깨끗하고, 담배꽂조차도 버리게 되면 4만원정도의 벌금이 규정 되었단다.

일행은 식물원으로 향하였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이라 한다.

하루에 한번씩 소나기가 오고 온도가 높아 열대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라서 별도의 온실이 필요없고 공원자체가 식물원인데 그곳에서 본 난초는 이 나라의 상징이라며 지체에도 난초가 인쇄되어 있었다. 높이 40cm정도의 난초가격을 물어보니 4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난초의 뿌리는 바람을 통해야 자란다고 하는데 화분에 담겨진 것은 흙이 아니고 숯과 자갈인데 그 사이사이로 뿌리가 엉켜져 있었다.

이곳은 적도 근처이기 때문인지 정오경에 태양의 고도는 머리위로 올라가 있어 사진찍는데 역광을 고려 할 필요가 없었다. 부두 근처에 들러보니 일본건설회사 「大林組」가 항만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부두근처에 초고층빌딩이 많아 바다에서 보는 싱가포르의 풍경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곳에서 떠나 싱가포르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Mount faber 에 도착 사진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서울의 남산격이 되는 이곳 주위는 각종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싱가폴 부두 근처의 고층건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찾은 곳이 바닷가 마레이지아 식당인 Paradise 인데 단층 건물인 이 식당은 평면의 계획이 정원과 어울리는 여유있는 설계였고, 지붕처리는 함석 종류로서 독특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 건물을 일행중 누군가가 新建築 잡지에서 본 일이 있다고 말한다.

실내에 자리를 한 손님들 중 우리들을 제외 하고는 거의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떠들어 대는 소리는 식당 전부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식사 후 자유시간이 있어 일행 몇명은 밀집된 시내 빌딩사이로 차를 몰았다.

차이나타운, 퀸스타운 아파트단지를 경유하며 Haw Pavila 를 보았다.

숙소인 Royal Hotel 은 톰슨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중 택시 운전수에게 톰슨가의 로얄호텔이라 이야기 해주었더니 얼마쯤인가 시내를 맴돌다가 로얄호텔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는가.

돌아갈 시간은 약속되어졌는데 이 운전수 목적지를 모르니 큰일났다. 운전수는 중국계인으로서 영어는 우리보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런지 알 수 없다. 이곳은 일방통행이 많아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도 뒷쪽으로 돌아야 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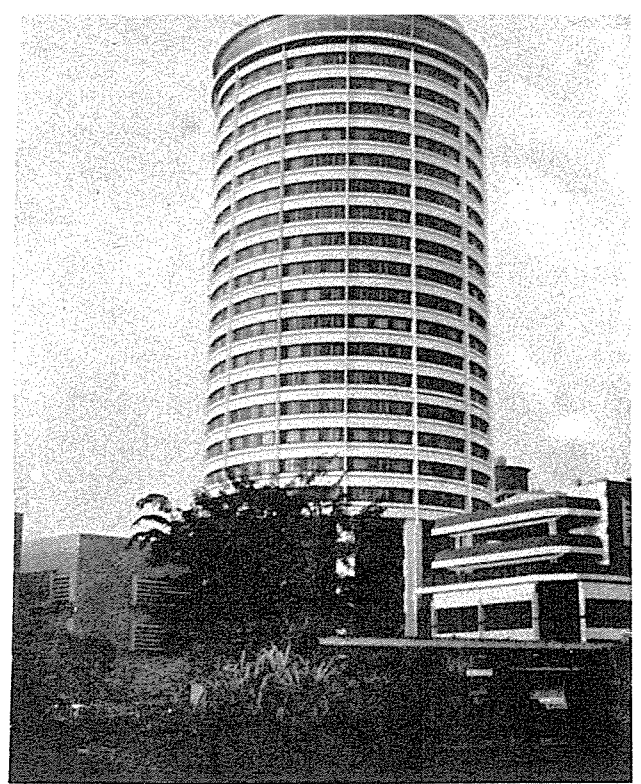
호텔옆에 우뚝 솟아있는 둥그런 빌딩을 눈여겨 보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운전수에게 그 빌딩 근처에 대어 달라 손짓하니 고개만 끄덕이면서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다.

운전수가 길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 더 이상 이 택시를 타고 우물쭈물 할 수 없는 촉박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어 다른 차로 갈아 타고 호텔로 향하다가 일행 한명이 “앗”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 안에다 카메라를 놓고 내렸는지 않는가!

바쁘긴한데 어이없는 일이다.

호텔로의 직행길을 포기하고(다행히 그 택시의 번호를 기억할수 있었기 때문에)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향하였다. 숙달되지



원형의 고층빌딩

못한 영어솜씨로나마 신고를 하니 아주 친절할 태도로 한번 있어 버리면 찾기 힘들고 운전수가 자발적으로 가져오기만 기다려야 한단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일행은 이미 Queen garden 으로 떠난 후였다.

싱가폴 지도상에 미리 위치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20여분 이상이 걸려 고생없이 Queens garden 주차장에 대어 주었다. 일행은 벌써 식사 중이었다. 이곳은 야외식당으로 음악을 들어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고생이 많았으니 특별히 벌금을 안받겠다는 단원들의 이야기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호텔에 돌아와 보니 카메라를 찾았다는 연락이 경찰서로 부터 전달되었다. 몹시 반가운 일이다.

싱가폴의 경찰이 친절하더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다.

싱가폴은 방콕과는 달리 깨끗하였고 건축중인 고층건물, 고층맨션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일행은 시공중인 맨션아파트 현장에도 들러 볼 수 있었다.

25층 정도의 Tower 식 맨션이었는데 발코니의 조개껍질같은 곡선이 재미있었다.

인구는 늘어나고 영토는 적고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니 고층아파트를 건축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은 우리나라와 다를바 없었다. 일부에서는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동남아시아시찰중 가장 건축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50여층의 Core system 건축물이 시내에 많이 건축되고 있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좀 더 머물면서 설계, 시공에 관한 여러가지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 싶은 마음이나 계획대로의 움직임에 미련을 두고 떠날 수 밖에..... (계속)